

# 아동의 성격과 동작성 가족화 반응특성 연구

## Study of Child Personality and Kinetic Family Drawing Respondent Characteristic

강 영 자 · 김 윤 희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Kang, Young Ja · Kim, Yun Hee  
Dept. of Home Management, Taejon Univ.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and respondent characteristics of Kinetic Family Drawing for young children. The subjects were 170 children(110 boys and 60 girls). The personal interview contained Personality Characteristic Test for young children(In-Sub Song, 1993) and Kinetic Family Drawing Test(Burns and Kaufman, 1982). Results of the test were analyzed by t-test and ANOVA by SAS program.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children's sex and the general tendency of personal characteristic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motional personality among 4 personality characteristics. Girls show more positive tendency than boys in moral, physical, appearance and feature which expressed personal feeling and emotion. Also, girls showed more positive tendency than boys in personal characteristic which showed physical ability. Second, Children's sex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 in Kinetic Family Drawing respondent characteristic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own's arm length. Also, Using a rare of paper and chapter 1 of the power among the famil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styles and symbols. The boys drew lengthier arms compared with their height than the girls. The girls were less complicative, anxious, comparative and aggressive for their family. Third, As a result of the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4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individual's behavior in Kinetic Family Drawing respondent characteristic, the significant difference is showed in academic personality and social personality had higher completion of their father's feature and drew bigger feet. In social personality, negative behavior than positive children. Fourth, As a result of the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4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individual's characteristic, the significant difference were found in academic personality, social personality, family personality and emotional personality. Children with negative academic personality drew longer arms than children with positive academic personality, social personality and family personality.

Also, Children with negative emotional personality drew more siblings than children with positive emotional personality. Fifth, The academic personality and the social personality ha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4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dynamics. In social personality, normal children were more tendencious to look at the important person with their mother's direction than positive children. Sixth,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4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mode, academic personality and family personal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Children with negative academic personality used more edge of papers than children with positive academic personality and children with positive academic personality and children with negative family personality fold more papers than children with positive family personality. At la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4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styles as well as symbols.

**Key words:** KFD(Kinetic Family Drawing), personality characteristic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 및 목적

성격은 개인이 환경에 대처하는 독특한 방법을 반영하는 특징적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의 총체적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강문희, 1980), 개인마다 성격특성에 따라 일정한 반응양식을 보이며, 개인의 행동반응양식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진다. 또한 성격은 개인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받은 자극에 대해 그들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으로 표현되며, 개인의 성격은 그 개인이 성장하면서 환경이나 교육과 같은 여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김명훈, 1991).

이러한 아동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가정이라는 환경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동은 생활하며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타인과 더불어 성장한다. 이렇게 유아가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가족간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족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가족이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이 된다.

아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에서 Despert(1940)는 아동의 여러 가지 놀이과정과 마찬가지로 아동화도 아동의 성격진단에 유용하다는 것을 크게 강조하였으며, Bell(1948)은 임상적 경험에서 얻은 해석을 종합하여 분석 기준표를 만들어 아동화의 심리적 진단가치를 높이는데 공헌하였는데, 아동의 그림분석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할 가능성을 지닌 부분을 해석해서는 안되며 그림은 항상 전체로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에 나타난 정서측면의 이해가 중요한데, 그림을 통해 정서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는 투사적 방법에는, HTP(House-Tree-Person), CAT(Children's Apperception Test), 인물화 검사, 동작성 가족화 검사(Kinetic Family Drawing) 등이 있다. 그중, 동작성 가족화 검사의 경우는, 가족성원들에게 운동성을 부여하도록 하여 그 운동성 및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내의 역동성을 알아봄으로써 가족구성원에 대한 개인의 행동이나 반응으로서의 태도, 감정이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Die Leo, 1973).

따라서 동작성 가족화 검사는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데, 개인이 안고 있는 가족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작성 가족화에 의해 투사된 가족에 대한 태도는 아동의 성격형성과정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격과 관련된 국내의 최근 동적 가족화의 연

구들 중 최외선(1996)은 초등학생의 동작성 가족화에 나타난 인물상의 특성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개념수준과 어머니의 눈, 얼굴, 표정, 어머니상 생략, 자신과 아버지의 크기에 유의성을 밝혔으며, 동작성 가족화에 의한 초등학생의 가족지각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자신 신체완성도, 역동성, 아버지의 방향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격과 관련하여 동작성 가족화 반응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이명희(1997)의 연구만이 아동의 성격과 인물화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동작성 가족화는 아동의 정서적인 면을 이해하고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며 동작성 가족화에 투사된 가족에 대한 태도를 통해 아동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격과 동작성 가족화와 관련하여 가족의 역동성 및 가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객관적으로 표준화된 유아성격검사에서 나타나는 학령전 아동(6-7세)의 성격과, 가족의 역동성 및 아동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동작성 가족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동작성 가족화 검사가 유용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아동의 성격과 동작성 가족화와의 관계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가족내에서 느끼는 정서적 갈등과 부적응의 원인을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서적 갈등과 부적응의 원인을 진단, 해결하여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과 원만한 성격형성을 이루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 1) 아동의 성격특성 (학문성, 사회성, 가족성, 정서성)과 성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 동작성 가족화 반응특성(인물의 행위, 인물의 특성, 역동성, 양식, 상징화 및 유형화)과

성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 아동의 성격특성(학문성, 사회성, 가족성, 정서성)과 동작성 가족화 반응특성(인물의 행위, 인물의 특성, 역동성, 양식, 상징화 및 유형화)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성격

성격이란 개인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적 사고, 감정 및 행동방식으로 개인마다 독자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성격특성에 따라 일정한 반응양식을 보이며,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행동의 주체로서 행동양식을 결정해주는 생리적·정신적 요소로 성격은 성장에 따라 형성되며 환경·교육 등과 같은 여건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명훈, 1991).

아동기의 성격 발달에 있어서 아동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긍정적 경험과 욕구가 좌절되는 부정적 경험이 교차되는 과정 속에서 주도성 대 죄의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며 위기가 긍정적으로 극복되면 아동의 성격은 긍정적으로 극복된다(이명희, 1997). 그러나 실패의 경험이 많은 경우 아동의 주도성은 위축되고 자기 주장에 대해 죄의식을 갖게 되며 지속적인 죄의식은 체념과 무가치감을 갖게 되어 소극적이고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의존성이 강한 성격을 발달시킨다(송명자, 1995).

Freud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힘의 양이 고정되어 있으며 생각하고 배우고 그외의 정신기능을 수행하거나 기본적 충동을 만족시키는 데는 힘이 필요하다고 한다(김수정·최순영, 1995). 특히 발달초기에 나타나는 아동의 생득적 욕구와 충족의 경험이 중요하며,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양육자와 아동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성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경숙, 이은해, 정문자, 지혜련, 1987).

Maddi(1980)는 성격이란 사람들의 심리적 행동에 있어 시간적으로는 연속성을 가지며, 그 순간의

사회적 및 생물적 압력들의 결과로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결정하는 특징 및 경향의 안정된 집합이라고 하였다. 또한 Murrary(1935)는 성격을 욕구와 환경의 요구간에서 생기는 역동적 또는 기능적 중재로 정의 내렸다. 또한 Rogers(1961)는 현상학적으로 성격을 이해하였는데 즉 개인의 주관적 경험, 감정 그리고 세계와 자신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사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간의 행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자신의 내적 준거 체계인 자아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성격은 개인이 자극에 반응하는 일관성 있는 패턴이라고 볼 때에, 반응패턴간의 관계를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2. 동적 가족화

아동화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2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아동화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도 어떤 뚜렷한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주로 아동화에 대한 발달단계를 구분하고, 그 단계마다 특징들과 연령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그림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였으며 이것은 아동의 개인차와 정신발달에 크게 공헌하였다.

Goodenough(1926)가 인물화를 심리검사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한 후 성격 검사 도구로써 인물화에 대한 연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아동은 자신이 보고 인식한 세계를 그리기보다는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 즉 자신의 경험을 투사해서 그림을 그리므로 아동화는 주관적인 색채가 뚜렷하여 지적인 문제 및 성격장애를 조기에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Fox & Thomas, 1990).

Machover(1949)는 각 개인이 그리는 인물화로 성격의 중요한 측면을 진단하는 방법을 밝혔으며 Levy(1959)도 인물화에 자신의 내면세계가 투사된다고 하면서, 인물화를 분석하는 기준과 인물화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의 상징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즉 인물화는 그려진 그림 자체가 자신을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투사하여 자기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나타내주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그림 속의 표현양식은 아동의 심리적인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데(김재은, 1991) 첫 번째, 아동이 그린 그림은 단순한 인물이나 물체를 단편적으로 그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배경도 첨가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풍부한 그림을 만들어 간다. 이것은 아동이 언어가 웅알이에서 시작해서 점차 발달되는 시기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아동이 그린 그림은 아동이 획득한 개념과 생활경험을 표현한 것으로 그림과 개념사이에 많은 병행관계가 있다. 아동이 갖게 되는 개념이란 처음에는 막연하고도 미분화된 개념을 갖는 시기에서 점차 그 개념의 내용이 명료하고 뚜렷한 한계를 갖는 시기로 발달해가듯이 아동화도 아동의 생활경험의 깊이와 폭, 그리고 그 내용을 점차로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아동의 그림은 자기상의 표현으로써 아동이 갖는 심상과 관계가 깊다. 단순한 심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심상으로 발달하며 우연한 결합에서부터 창조적인 결합이란 경로를 거쳐 자연스럽게 발달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에는 머리 속에 그림의 원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즉 어떤 대상이나 모델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그것을 단순히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머리 속에서 이를 동화해서 가시적인 심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약 유아에게 어떤 신체적 장애나 심리적 발달에 장애가 있으면 다분히 그 이미지는 내·외의 자극이 되어, 막연한 형에 어떤 굴곡을 만들게 되고, 또 그것이 아동의 독자적인 심상이 되어 화면에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즉 Machover(1949)는 한 개인의 갖는 자아상이란 인물화에 바로 투사되어 지기 때문에 인물화의 해석은 유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네 번째로 아동의 그림은 창조적 사고의 표현으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주의력을 갖게 되고 이런 주의력이 의지력으로 바뀌어서 단순히 자동적이고 무의미했던 작업이 의식적 계획적인 작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따라서 유아는 표현에 자신을 갖게 되고, 거기서 과거의 경험을 넘어서는 힘과 현실에 맞부딪히는 힘이 창조력이라는 형태로 바뀌며, 이 창조력은 그림 그 자체까지도 의미

를 부여할 정도로 커가게 되고 이로 인해 아동의 성격에 영향을 주고 있던 장애가 도리어 아동의 창조적 작업 속에서 해소되고 문제해결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로 아동이 그린 그림은 아동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유아의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 욕구불만의 모습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최초의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 그 욕구충족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동은 심리적 긴장을 강화해간다. 이 강화된 심리적 긴장이 그림에서는 팔과 손가락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의 생리적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심리적 긴장이나 욕구불만은 아동의 생육사와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그 해소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아동이 그린 그림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 표현으로 아동이 그린 그림 속에는 환경에서부터 받는 심리적 압력과 같은 여러 가지 억압상태가 표현되어진다. 즉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사건 예컨대, 가족원간의 복잡한 인간관계나 부모의 훈육방법, 가족원간의 감정의 교류같은 것이 반영되는 수가 많다. 즉 환경에서 받는 압력을 호소하기 위해서 아동은 그림 속에 각기 독자적인 표현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아동이 그린 그림은 성격특징의 투사로 아동의 욕구, 정서, 성격의 투사라는 점이다. 즉 아동이 그린 그림은 행동의 기능, 감정, 애정의 욕구, 자기표출의 수준, 여러 가지 욕구불만을 표현하여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유아의 진실한 감정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런 유아의 감정생활의 성질이나 정도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며 선이나 형태는 보존하고 있는 에너지, 통제력의 정도, 통제력이 작용한 방향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Hedwick, 1947).

마지막으로, 아동의 그림에 나타난 심리적 특징은 무의식적 세계의 투사이며 정신·신체의 병리적 징후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즉 아동의 정신적 세계를 모두 외부에서만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나타나지 않는 면 즉 숨겨져 있는 정신세계를 그림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으며(Murray, 1935), 아동의 공격적 반응, 도피적 반응, 퇴행반

응, 방어적 반응, 보상적 반응 등의 문제행동이 그림에 잘 투사되어진다는 것이다.

### 3. 아동의 성격과 동적 가족화

가족에 대한 지적인 이해보다 정서적 이해가 투사되는 가족화는 비동적인 것과 동적인 것으로 구분되며 비동적, 동적 묘화는 치료자가 그림을 그리도록 지시할 때에 가족화의 결과에 나타난 동적 요소의 유무를 말한다(김동연, 1993).

가족화는 아동의 성격이해를 위해 그려진 인물상에 대한 대인인지과정에서 지적이해보다는 정서적 이해가 한층 더 유용한 정보원이 된다는 것이며 인물화보다 가족화가 훨씬 더 가족성원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반영해주고 있다.

Burns 와 Kaufman(1970)은 가족화가 일반적으로 정적인 특징을 기술하는 가족그림이며 같은 아동에 의해 반복된 그림에서 그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가족화와 동작성 가족화를 비교해보면 개인과 전체 가족성원에 대한 묘화자의 태도와 지각을 밝혀내는데 있어 동작성 가족화가 더 많은 가능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가족화와 동적 가족화의 커다란 차이는 본래 추구하는 바의 차이로 가족화는 '당신의 가족을 그려보라'는 요청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분리된 가족성원을 그린다. 이 그림에서 이들 성원들이 실제 가족과 같이 상호작용하는 어떤 내면적 및 외현적인 요구도 보이지 않으며 한 장의 종이위에 가족성원들이 함께 그려진다는 사실은 '가족'으로서의 집단의 정의만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동작성 가족화는 '당신을 포함해서 당신의 가족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여 가족화에 동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개인이 가족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가족', 그리고 상호존재적인 단위를 형성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가족이 정의된다(이영석, 1995).

또한 동적가족화가 지향하는 바는 개인으로 하여금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묘사하도록 하므로 검사자는 아동의 동적 가족화에 나온 역동을 즉각적으로 토론할 수 있으며,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의식적이든 그렇

지 않든)와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를 탐색할 수 있다. 동작성 가족화는 어떤 의미에서 주제통각검사(TAT)와 유사한 면이 많은데 즉 자신의 가족을 그리는 것이라는 점과 TAT가 언어표현 양식이란 점, 불특정의 인물을 소재로 하는 점 등의 방법상의 차이가 있으나, 동적인 상태의 자유를 포함하는 점과 인물상을 상호 관련 지우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결국 사회생활을 통해서 몸에 익힌 일정의 보편적 테두리를 배제하고, 처음으로 진실한 개성을 만났다고 하는 관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동작성 가족화는 비언어적 방법보다 자유로운 자기 표현방법을 허용하는 그림을 요구하고 있다(권기덕 외, 1995).

또한, 동작성 가족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각의 선택성(selectivity of perception)을 들 수 있는데 선택적 지각이란 그림을 그리는 아동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말한다. 동작성 가족화를 지시할 때 아동은 가족구성원들이 어떠한 행위, 또는 동작을 행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받으며 그때 아동은 자신의 눈에 비친 가족들의 일상 생활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며 그림속의 가족구성원은 전혀 별개의 행위를 하고 있기도 하고, 가족전원이 합동하여 작업을 분담하는 표현도 보인다. 가족 구성원의 일상적 행위나 동작 중에서 그림에 나타난 행위나 동작이 선택적으로 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묘화자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의 상태에 의존하고 있고 결국 우리들은 객관적, 물리적 환경에서 산다기보다는 자신이 주체적,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주관적, 심리적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각의 선택성도 개인 고유의 주체적 심리적 장을 구성하는 기반이 된다(권기덕 외, 1995).

동작성 가족화의 진단적 측면에서의 기능은 그림 속에 인물의 동작이 내포되어 있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묘화자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관계를 나타낸 인지적 구조가 투사된 것으로 보고, 묘화자의 성격형성이나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영석, 1995).

O'Brien 와 Patton(1974)는 10-14세의 남자 42명과 여자 37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자아감

(SEI)이나 불안(CMAS)에 동작가족화의 각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한 결과, 인물상의 방향은 동료적 자아개념, 가족수는 학구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자기상이 아버지와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동료적 자아감이 높았고, 가족수가 많을수록 학구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형제수가 많을수록 덜 공격적이고, 위축행동은 여아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 고립행동은 성별과 성적이 예언해 주었는데 성적이 낮은 아이가 그리고 여아가 고립행동을 더욱 나타냈다.

최외선(1995)은 한국아동과 한국계 미국 아동의 자아개념과 동작성 가족화에 의한 가족역동성과의 비교문화적 연구를 한 결과 한국 아동이 한국계 미국아동보다 자아개념이 낮았고 동작성 가족화에서 나타난 가족의 역동성에서는 아버지를 상단에 그리는 경향이 높아 한국의 가부장적 특성을 잘 반영했으며, 한국계 미국아동이 한국아동보다 자기상이 정면으로 향하는 경향이 높아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인물상간의 거리는 한국 아동이 한국계 미국 아동보다 부모와의 거리가 멀었으며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신의 위치를 상단에 그리고 인물상이 서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동작성 가족화가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를 시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동작성 가족화에 의한 초등학생의 가족지각연구(최외선, 1995)에서 성별에 따라 인물상의 행위차원, 크기, 역동성에 차이를 나타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6-7세 학령전 아동 170명(남아 110, 여아 60)으로 하였으며, 1997년 8월 15일-1997년 10월 8일까지 연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1997년 8월 12일에 12명을 대상

으로 하였는데 유아성격검사와 동작성 가족화 반응특성을 1:1 개인면접을 통해 서로의 관계 및 형제수를 살펴보았으며, 가족 환경적 질문지는 부모의 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 가족환경 질문지는 회수율이 저조하고 서로 관련이 없어 제외시키고 본 검사에서는 유아성격검사와 동작성 가족화 반응특성만을 살펴보았다. 본 검사는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한 학생 5명과 대학원 학생 1명과 함께 6-7세 아동을 개인면접으로 실시하였다.

## 2. 사용도구 및 실시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유아성격검사와 그림검사인 동작성 가족화 검사이며, 유아의 성격특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송인섭(1993)이 표준화한 유아성격검사를 실시하였고, 그림검사로 Burns와 Kaufman(1982)이 개발한 동작성 가족화를 사용하였다.

### 1) 유아성격검사

유아성격검사는 학문성, 사회성, 가족성, 정서성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검사는 매장마다 성격특성을 간결하게 나타낸 질문과 내용을 나타내주는 원색그림으로 되어있다. 검사의 문항은 연습문제 1문항과 본 문제 26문항이며 본 문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는 16문항과 부정적은 내용으로 되어있는 10문항이다.

### 2) 동작성 가족화 검사(Kinetic Family Drawing)

동작성 가족화를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 대상자를 위한 A4(210×297mm)와 연필(HB나 4B), 지우개였다. 동작성 가족화 검사는 유치원 각 반별로 이루어졌으며, 용지를 배부하고 '지금부터 자기를 포함하여 자기 가족을 그리는데 가족 모두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세요.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 전체를 그리도록 하세요'라고 지시를 하고 검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라고 공통된 대답만을 하도록 하였다. 그림을 그린 후 누구부터 그림을 그렸으며 가족이 생략된 사람이 없는지 개별적으로

로 질문하여 기재하였다.

## 3. 채점방법

### 1) 유아성격검사

채점방법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는 문항과 부정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는 문항에 대한 점수 체계를 다르게 하도록 되어 있다. 유아성격검사에서 성격경향은 학문성, 사회성, 가족성, 정서성으로 나누어 네 가지 성향 각각 긍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문항에는 유아의 반응이 긍정이면 1점, 부정이면 2점을 준다. 점수의 산출방법은 하위 영역별 각 문항의 반응에 대한 점수의 합이 원점수가 되고, 원점수를 가지고 규준표에 의해 T 점수와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였다. 성격특성은 하위 영역별로 환산된 백분위 점수가 81%이상이면 긍정적인 성격특성으로, 30%~80%이면 보통의 성격으로, 30%이하이면 부정적인 성격특성으로 분류하였다.

### 2) 동작성 가족화 검사(Kinetic Family Drawing)

동작성 가족화 검사의 채점방법은 Burns와 Kaufman(1983)의 임상적 가설에 경험을 두고 개발한 채점기준과 양익홍(1984)의 연구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채점기준은 그림을 (1)인물의 행위(7개변인), (2)인물상의 특성(10개변인), (3)인물들의 역동성(4개변인), (4)양식(7개변인), (5)유형화와 상징화(9개변인)등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아버지상, 어머니상, 자기상을 각각 채점하여 총 78변인을 평가하였다.

## 4. 자료처리

자료처리는 SAS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 행해졌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본 연구자와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연수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과 채점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는데 상관관계계수가 .94로 나왔다.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동적가족화 반응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하였으며 성

〈표 1〉 성별과 아동의 네 가지 성격특성의 일반적 경향

성별 하위영역	전 체 N(%)	남 아			여 아			$\chi^2$ 값 df=2
		부정	보통	긍정	부정	보통	긍정	
학 문 성	161 (100.00)	19 (17.59)	34 (31.48)	55 (50.93)	7 (13.21)	12 (22.64)	34 (64.15)	2.52
사 회 성	161 (100.00)	24 (22.22)	13 (12.04)	71 (65.74)	7 (13.21)	7 (13.21)	39 (73.58)	1.86
가 족 성	161 (100.00)	14 (12.96)	31 (28.70)	63 (58.33)	6 (11.32)	12 (22.64)	35 (66.04)	.91
정 서 성	161 (100.00)	39 (36.11)		69 (63.89)	11 (20.75)		42 (79.25)	3.92*

\* $p < .05$ 

격특성에 따라 동적가족화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분석을 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의 test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유아성격검사와 동작성 가족화 검사(Kinetic Family Drawing)를 사용하여 실시한 조사의 자료를 연구문제별로 분석정리 하였다. 따라서 성별과 아동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별과 동작성 가족화 반응특성과의 관계, 아동의 네 가지 성격특성과 동적가족화 다섯 가지 반응특성과의 관계 순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만을 제시하였다.

##### 1. 성별과 아동의 네 가지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별에 따른 아동의 성격특성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네 가지 성격 중 정서성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 $p < .05$ ), 여아가 남아보다 성격특성 중 정서성 영역에서 더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정서성은 도덕성, 신체, 외모, 생김새 등을 나타내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 그리고 신체적 능력을 나타내는

성격특성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자아가 낮게 나타나, 이숙정(1996)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일치를 보여주고, 최외선(1995)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신체적 자아가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6-7세 아동들 중 여아가 남아에 비해 성역할이 일찍 습득되어 신체나 외모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성별과 동작성 가족화 다섯 가지 반응특징

성별에 따라 동작성 가족화(KFD)의 반응특성 중 인물상의 행위, 인물의 역동성, 인물의 양식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물의 특징 중 <표 2>에서 보여주듯이 자신의 팔길이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1$ ) 즉 자신에 대한 팔길이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신체길이에 비해 팔을 더욱 짧게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지배의 욕구와 자아의식과 야심이 덜하다는 大伴(1956)의 연구와 일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체완성도나 인물상의 생략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신체부분의 생략이 많은 것은 신체부분에 대한 열등감이



<표 2> 성별과 인물의 특징

행 위		성 별			t값
		전 체	남 학생	여 학생	
팔 길 이	아버지	2.61(1.20)	2.64(1.22)	2.56(1.18)	.38
	어머니	2.39(1.26)	2.49(1.24)	2.19(1.31)	1.24
	자 신	2.57(1.25)	2.85(1.16)	2.06(1.26)	3.60***
신체완성도	아버지	4.49(.62)	4.49(.64)	4.60(0.58)	-1.49
	어머니	4.44(.65)	4.47(.61)	4.40(0.73)	.49
	자 신	4.41(.74)	4.50(.64)	4.27(0.88)	1.64
눈	아버지	1.26(.72)	1.27(.75)	1.26(0.66)	.13
	어머니	1.21(.65)	1.17(.67)	1.30(0.64)	-1.10
	자 신	1.19(.63)	1.21(.62)	1.18(0.67)	.19
얼 굴	아버지	2.40(1.05)	2.35(1.07)	2.50(1.10)	-.16
	어머니	2.41(1.06)	2.30(1.25)	2.61(0.90)	-1.65
	자 신	2.35(1.06)	2.34(1.04)	2.37(1.10)	-.16
표 정	아버지	1.30(.94)	1.41(.90)	1.09(1.01)	1.75
	어머니	1.28(.94)	1.48(.94)	0.91(0.83)	3.48
	자 신	1.33(.94)	1.44(.85)	1.12(1.06)	1.80
발	아버지	1.55(1.47)	1.45(1.39)	1.76(1.32)	-1.26
	어머니	1.66(1.43)	1.48(1.42)	1.72(1.58)	-.83
	자 신	1.08(.83)	1.65(1.40)	1.67(1.50)	-.05
형 제 수	아버지	1.08(.80)	.94(.78)	1.37(.87)	-2.98
	어머니	.24(.42)	.27(.45)	.17(.37)	1.40
	어머니	.22(.41)	.21(.42)	.23(.43)	-.20
크 기	두 분	.13(.34)	.15(.36)	.10(.31)	.75
	아버지	88.59(49.97)	93.85(52.70)	78.32(42.37)	1.81
	어머니	95.26(88.92)	96.33(105.65)	93.25(43.31)	.23
자 신	아버지	72.20(37.00)	69.33(35.49)	77.65(39.50)	-1.23

\*\*\* p < .001

M(SD)

나 그 부분에 집착하는 불안을 의미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자기상에서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물상의 생략은 1점 이하로 적게 나타나 다른 성원과 동일한 장면에 두기 어려울 정도의 공격, 불안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있지는 않다는 권기덕(1993)의 연구를 뒷받침해주며, 대다수의 아동이 인물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물에 대한 표정도 대체적으로 우호적으로 나타나 가족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별과 동작성 가족화 반응특성 중 유형화 및 상징화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형화에서는 가족원간의 역동성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는 것으로 인물묘사의 크기, 순서를 통해서 가족의 위계적 질서를 알아보고, 타인묘사, 종이 뒷면사용, 지우기, 회전된 상, 음영이나 사선, 막대기 그림, 자기 및 가족원의 생략을 통해 가족간의 갈등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종이뒷면 사용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부적응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p<.05). 즉 여아가 남아보다 가족원에 대한 심리적 갈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징화에서는 가족원간의 힘의 장 1은 공이나 그밖에 던지는 물체가 나타났는지를 보는 것으로 불안이나 경쟁, 공격성을 의미하며, 힘의 장 2는 그림내에 전기불이나 해와 같이 비추어 주는 사물을 보고 따뜻함이나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애

〈표 3〉 성별과 유형화 및 상징화

유형화 및 상징화	남학생		여학생		$\chi^2$ 값 df=1
	부적응	적응	부적응	적응	
인물묘사의 순서 (연령순)	32(24.24)	61(46.21)	15(11.36)	24(18.18)	.19
인물묘사의 크기 (연령순)	25(18.94)	59(44.70)	9(9.82)	38(28.71)	2.32
타인 묘사 종이 뒷면	13(8.07)	95(59.01)	3(1.86)	50(31.06)	1.61
가족간의 힘의 장 1	9(5.62)	95(59.75)	0(0.00)	53(33.33)	9.33*
가족간의 힘의 장 2	1(0.63)	98(61.25)	0(0.00)	51(31.87)	8.58*
가족간의 힘의 장 3	4(2.50)	81(50.63)	0(0.00)	32(20.00)	4.93
가족간의 힘의 장 4	11(6.87)	103(64.37)	1(0.63)	52(32.50)	.40
지우기	34(21.25)	96(60.00)	10(6.25)	43(26.87)	2.29
회전	13(8.07)	73(45.63)	23(14.38)	30(18.75)	2.08
음영이나 사선	13(8.07)	95(59.01)	2(1.24)	51(31.68)	2.87
자기생략	30(18.63)	78(48.45)	10(6.21)	43(26.71)	1.51
막대기그림	13(8.07)	95(59.01)	4(2.48)	49(30.43)	.75
막대기그림	7(4.35)	101(62.73)	1(0.62)	52(32.30)	1.86

\* p < .05

N(%)

정육구를 알 수 있다. 힘의 장 3에서는 칼이나 날 카로운 위험한 물체가 묘사되어 있는지를 통해 분노와 적개심을, 힘의 장 4에서는 그림내에 나무나 꽃에 물을 주는 장면이 있는지를 통해 어리고 의존적인 면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적응을 나타내는 면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경쟁, 질투심, 공격성, 분노, 의존적인 감정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이영석, 1995)는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힘의 장 1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부적응 점수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것을 통해 여아가 남아보다 불안이나 경쟁, 공격성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부적응 점수가 높은 것은 지우기, 인물묘사의 크기, 순서등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우기에서 불안이나 가족원에 대한 갈등

및 인물묘사의 크기와 순서가 연령순에 맞지 않은 것도 위계적 질서가 없기보다는 6-7세 아동의 발달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아동기적 발달의 시기에서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지우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은 시기이므로 가족의 위계적 질서를 인식하기에 앞서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을 먼저 그리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3. 아동의 네 가지 성격특성과 동작성 가족화 다섯 가지 반응특성과의 관계

아동의 네 가지 성격특성과 동작성 가족화 반응 특성 중 인물의 행위차원에서는 인물의 행위, 어머니의 양육성에서, 인물의 특징차원에서는 팔 길이, 신체완성도, 발크기에서, 역동성 차원에서는

인물의 크기, 인물상간의 방향에서, 양식차원에서 가장자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동의 네 가지 성격특성과 인물의 행위와의 관계에서 학문성에서 어머니에 대한 양육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회성에서 자신에 대한 행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5$ ).

즉 학문성이 부정적인 아동이 보통인 아동보다 어머니의 양육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치원 장면에서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취하는 것에 자신이 없는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의존적이며 애정적 욕구가 강하고 어머니가 자신을 양육해주기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성에서 부정적인 아동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성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이 밖으로 나가 활동하고 싶은 욕구를 그림에서는 자신에 투사하여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성이 긍정으로 나타난 집단의 인물상에서 욕구불만의 특성을 많이 나타내는데 몸이 기울어져 있거나 누워 있는 모습을 더욱 많이 그렸다는 이명희(1997)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밖에 나가 활동하는데 적극적이고 적응을 잘 하는 아동들이 가정 안에서는 소극적이며 가족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의 네 가지 성격특성과 인물의 특징에서 학문성, 사회성, 가족성, 정서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  $p < .01$ ). 학문성과 인물의 특징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신체완성도와 자기에 대한 발의 크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p < .05$ ,  $p < .01$ ), 사회성과 가족성에서는 자기에 대한 팔길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p < .05$ ), 정서성에서는 그림상에 나타난 형제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

즉 학문성이 부정적인 아동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신체완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문성에서 부정적인 아동이 자신에 대한 발의 크기가 긍정적인 아동보다 더 크게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이 결과는 최희선(1996)의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이 낮은 집단보

다 높은 집단이 신체완성도가 더욱 높게 나타난 것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의 아동에게 있어서 학습에 대한 성취와 관련된 갈등은 찾아내기 힘든 것으로 보여지며, 신체완성도나 발의 크기에서 학문성이 부정적인 아동이 더욱 크게 그려 학습 성취에 따른 불안으로 인해 인물상에서 나타나는 그림에서 역기능적인 상태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성과 가족성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보다 팔길이를 더욱 길게 그렸는데( $p < .05$ ), 이러한 것은 사회성에 따른 인물의 행위에서 자신에 대한 그림에서 더욱 활동적으로 그린 것과 일치성을 보여준다. 즉 밖에 나가 활동하고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아동, 가정에서 가족원과의 적응정도가 낮고 가족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무의식적으로는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와 강한 자의식이나 야심을 그림에 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성은 그림상에 그린 형제수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5$ ). 즉 정서성이 부정적인 아동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그림에 나타난 형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에서 자신에게 집중되는 관심보다 형제들이 많은 경우 관심 받는 폭이 작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의 네 가지 성격 중 동작성 가족화 반응특성의 역동성 차원에서는 학문성과 사회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학문성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우월성에서, 사회성에서는 인물상의 방향에서 어머니에 대한 방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

즉 학문성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보다 역동성 중 아버지에 대한 우월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p < .05$ ). 이 결과는 학문성이 긍정적인 아동이 부정적인 아동보다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의 위치를 더욱 권위적이고 가정에서 우월하고 절대적이 존재라는 우

(표 4) 성격특성과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차원	성격특 구분	화문성		사회성		가족성		정서성								
		부정	보통	긍정	F값	부정	보통	긍정	F값	부정	긍정					
인물의 행위	아버지	3.48(1.65)	3.15(2.03)	3.32(1.91)	.22	2.85(1.99)	3.81(1.80)	3.34(1.87)	1.37	2.71(2.08)	3.71(1.92)	3.25(1.83)	1.66	3.34(1.84)	3.28(1.93)	.03
	어머니	3.85(1.63)	3.37(1.57)	3.78(1.76)	.86	4.04(1.49)	3.75(1.76)	3.55(1.72)	.86	3.00(1.85)	3.97(1.55)	3.55(1.72)	.79	3.45(1.60)	3.77(1.72)	.96
	자기	3.84(1.70)	3.92(1.57)	3.97(1.65)	.07	4.23(1.50)	3.47(1.91)	3.26(1.68)	3.47*	3.64(1.82)	4.00(1.62)	3.95(1.61)	.26	3.11(1.64)	3.64(1.71)	.59
인물의 양육	아버지	.38(.82)	.28(.69)	.35(1.12)	.09	.18(.53)	.21(.59)	.42(1.12)	.85	.18(.53)	.21(.59)	.42(.12)	.91	.19(.45)	.40(1.10)	1.45
	어머니	1.33(1.83)	.42(1.13)	.70(1.55)	2.56*	1.26(1.79)	.67(1.50)	.59(1.41)	1.86	.80(1.52)	.64(1.32)	.74(1.59)	.08	.71(1.36)	.73(1.58)	.00
	자기	.32(.80)	.21(.62)	.34(1.29)	.20	.19(.69)	.29(1.21)	.33(1.12)	.18	.14(.53)	.44(1.39)	.26(.94)	.59	.11(.37)	.40(1.27)	2.41
인물의 특징	아버지	2.87(1.01)	2.56(1.14)	2.56(1.30)	.62	3.00(1.44)	2.75(1.13)	2.47(1.12)	2.14	2.88(1.22)	2.50(1.21)	2.61(1.20)	.57	2.68(1.29)	2.58(1.17)	.90
	어머니	2.30(1.13)	2.45(1.20)	2.38(1.35)	.09	2.48(1.59)	2.58(1.38)	2.34(1.16)	.26	2.60(1.35)	2.42(1.23)	2.33(1.28)	.29	2.30(1.20)	2.43(1.30)	.30
	자기	2.24(.93)	2.76(1.05)	2.58(1.42)	1.33	2.65(1.47)	2.53(1.55)	2.56(1.15)	3.07*	3.36(1.28)	2.53(1.18)	2.46(1.25)	3.21*	2.47(1.10)	2.62(1.33)	.48
인물의 양상도	아버지	4.83(.00)	4.44(.68)	4.41(.63)	4.19*	4.56(.75)	4.69(.48)	4.44(.60)	1.26	4.71(.59)	4.50(.71)	4.44(.59)	1.24	4.49(.71)	4.49(.59)	.00
	어머니	4.50(.69)	4.50(.60)	4.40(.68)	.35	4.43(.66)	4.42(.67)	4.45(.66)	.02	4.33(.72)	4.55(.56)	4.43(.68)	.63	4.42(.64)	4.46(.67)	.07
	자기	4.84(.47)	4.39(.64)	4.29(.81)	2.52	4.46(.56)	4.71(.47)	4.36(.74)	1.69	4.43(.65)	4.53(.55)	4.36(.83)	.82	4.51(.62)	4.37(.79)	1.10
인물의 발	아버지	2.04(1.22)	1.69(1.52)	1.31(1.30)	2.81	1.78(1.40)	1.69(1.30)	1.46(1.39)	.63	1.88(1.17)	1.65(1.37)	1.44(1.42)	.82	1.41(1.30)	1.62(1.41)	.61
	어머니	2.00(1.38)	1.45(1.37)	1.50(1.56)	1.05	1.43(1.53)	1.54(1.56)	1.60(1.47)	.12	1.27(1.49)	1.59(1.46)	1.61(1.50)	.35	1.44(1.47)	1.63(1.49)	.44
	자기	2.42(.97)	1.71(1.43)	1.42(1.48)	4.74**	1.65(1.41)	2.00(1.46)	1.61(1.44)	.53	1.36(1.45)	1.79(1.46)	1.66(1.43)	.47	1.72(1.41)	1.64(1.45)	.09
역동성	행제수	1.33(1.01)	1.05(.73)	1.03(.83)	1.26	1.17(1.00)	1.32(1.16)	1.02(.71)	1.20	1.35(.70)	1.17(1.00)	1.00(.78)	1.58	1.33(.90)	.98(.79)	5.61*
	아버지	3.48(1.04)	3.62(1.31)	4.20(1.34)	3.97*	4.00(1.36)	3.75(1.44)	3.88(1.29)	1.23	4.35(1.17)	3.79(1.43)	3.88(1.29)	1.23	3.90(1.18)	3.89(1.38)	.01
	어머니	3.65(1.04)	3.53(1.35)	4.09(1.20)	2.87	3.91(1.38)	3.75(1.06)	3.84(1.24)	.07	3.87(1.36)	4.06(1.39)	3.75(1.06)	.73	3.97(1.12)	3.78(1.15)	0.64
양식	자기	3.28(1.12)	3.00(1.16)	3.41(1.20)	2.59	3.35(1.23)	2.94(1.11)	3.41(1.20)	1.18	3.71(0.99)	3.51(1.32)	3.20(1.15)	1.76	3.15(1.10)	3.15(1.25)	1.39
	인물상	1.75(1.36)	1.37(.82)	1.54(1.22)	.85	1.70(1.17)	1.94(1.29)	1.51(1.12)	1.08	1.59(1.18)	1.65(1.20)	1.58(1.14)	.04	1.41(1.00)	1.69(1.21)	1.99
	의	2.00(1.52)	1.58(.98)	1.54(1.06)	1.34	1.87(1.25)	2.33(1.30)	1.47(1.03)	3.98*	1.73(1.28)	1.85(1.30)	1.51(1.01)	1.14	1.60(1.15)	1.64(1.20)	.03
양식	방향	1.64(1.08)	1.57(.83)	1.53(1.06)	.11	1.68(.99)	1.41(.94)	1.41(.93)	1.53	1.43(.65)	1.52(.97)	1.43(.97)	.31	1.38(.77)	1.49(1.02)	1.43
	가장자리	.88(1.14)	.57(.91)	.39(.78)	3.18*	.55(.93)	.75(1.12)	.47(.85)	.82	.40(.75)	.63(1.05)	.50(.86)	.51	.60(1.03)	.49(.83)	.55
	중이점기	.24(1.20)	.04(.21)	.02(.50)	1.92	.23(1.09)	.05(.22)	.02(.14)	2.11	.35(1.35)	.05(.22)	.01(.10)	4.01*	.20(.89)	.00(.00)	5.84

\*p<.05 \*\*<.01 사후검증: Scheffe test (단, 외동의 경우 형제수에서 제외) M(SD)

리 나라 가족구조의 특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의선(1995)의 연구에서 자아개념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자신의 위치를 상단에 그리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사회성에서 보통의 아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보다 그림을 바라보는 인물상의 방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 즉 사회성이 보통인 아동이 그림안에서 어머니가 바라보는 방향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중요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성이 보통인 아동들은 밖에서 나가 완전히 적응한 것도 아니고 부적응 한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아동들로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네가지 성격특성과 양식과의 관계에서 학문성과 가족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문성에서는 가장자리, 가족성에서는 종이접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

즉 학문성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보다 가장자리를 더욱 많이 활용하여 가족원을 그렸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중 양식화에서 가장자리를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은 지적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당히 방어적인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학업과 관련되어 방어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성에서 양식차원 중 종이접기에서 가족성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5$ ) 가족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아동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종이접기를 많이하여 가족관계에서 존재하는 불안이나 공포가 긍정적인 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논의

###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6-7세)의 성격특성과 동작성

가족화 반응특성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며, 유아성격검사(송인섭, 1993)와 동작성 가족화 검사(KFD)를 사용하여 아동 170명(남아 110명, 여아 60명)에게 실시하였고, 결과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와 ANOVA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아동의 성격특성과 성별의 일반적 경향은 4가지 성격 특성 중 정서성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즉 여아가 남아보다 도덕성, 신체, 외모, 생김새 등을 나타내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 그리고 신체적 능력을 나타내는 성격특성에서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6-7세 아동의 시기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성역할이 일찍 습득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아가 남아보다 신체나 외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이숙정(1996)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자아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지만 최의선(1996)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불일치한다.

둘째, 아동의 성별과 동작성 가족화 반응특성 결과 인물의 행위, 역동성, 양식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물의 특징에서 자신에 대한 팔길이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즉 남아가 여아보다 팔길이에 있어서 신체길이에 비해 더욱 길게 그렸다. 이 결과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지배의 욕구와 자아의식 및 야심이 강하다는 大伴(1956)과 김재은(1991)의 연구와 일치한다.

유형화와 상징화에서는 유형화 중 종이뒤틀면 사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상징화에서는 가족원간의 힘의 장 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그림을 그릴 때 종이뒤틀면 을 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여아가 남아보다 가족원에 대한 심리적 갈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징화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불안과 경쟁, 공격성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성별과 동작성 가족화와의 관계에서 볼 때 남아가 여아보다 환경에 대한 지배욕구 및

자아의식이 강하며, 가족원에 대한 심리적 갈등 및 불안, 경쟁,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네 가지 성격특성과 동작성 가족화의 반응특성 중 인물의 행위와의 관계는 학문성과 사회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문성에서 인물의 행위 중 어머니에 대한 양육성에서 학문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문성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의존적이며 좀더 따뜻한 보살핌을 더욱 필요로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성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보다 자기에 대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성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이 밖으로 나가 활동하고 싶은 욕구를 그림에서는 자신에 투사하여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성이 긍정적인 집단이 인물상에서 욕구불만의 특성을 많이 나타내는데 몸이 기울어져 있거나 누워있는 모습을 더욱 많이 그렸다는 이명희(1997)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학문적 활동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들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어머니에 대해 의존적이면서도 따뜻하고 보살펴주기를 바라는 애정적인 욕구를 더욱 나타내고 있으며, 밖에 나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아동들이 그림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그림에 그대로 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문적인 활동인 학습활동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관심과 애정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로 되며, 사회성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들이 내적으로는 대인관계에 적응하고 활동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아동의 욕구를 인정하고 대인관계를 맺는 기회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문성이 부정적인 아동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어머니에 대해 의존적이고 보살핌을 더욱 필요로 하며, 학업과 관련된 방어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문성이 긍정적인 아

동이 부정적인 아동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욱 권위적이고 가정에서 절대적이며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성이 부정적인 아동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동작성 가족화에서 신체완성도나 발의 크기를 더욱 크게 그린 것으로 보아, 아동기적 발달경향으로 자신의 중심적 사고에서 가족이나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아동의 네 가지 성격특성과 인물의 특성과의 관계는 아동의 네 가지 성격특성인 학문성, 사회성, 가족성, 정서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문성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신체완성도에서 학문성이 부정적인 아동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에 대한 발크기에서 학문성이 부정적인 아동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발의 크기를 크게 그린 것으로 나타나, 최희선(1996)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개념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신체완성도와 발의 크기를 크게 그린 것으로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학령 전 아동은 아직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특성에 따라 가족이나 사물을 긍정이나 부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적 발달적인 경향인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가족이나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성과 가족성은 자신에 대한 팔길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사회성과 가족성에서 부정적인 아동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자신의 팔길이를 길게 그렸다. 이 결과는 사회성이 부정적인 아동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인물의 행위에서 자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린 것과 일치한다.

즉 밖으로 나가 활동하고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아동, 가정에서 가족원과의 적응정도가 낮고 가족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무의식적으로는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와 강한 자아의식이나 야심을 그림에 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서성에서 부정적인 아동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그림에 나타나는 형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즉 가족내에서 자신에게 집중도는 관심보다 형제들이 많은 경우 관심받는 폭이 작

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격특성에서 밖에 나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가족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내적으로는 그림내에 밖에 나가 활동하고 싶어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구와 강한 자아의식과 야심을 투사하고 있으며 가족내에서 형제가 많은 경우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 활동에서는 신체완성도나 발크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이 높게 나타나 가족이나 사물을 긍정이나 부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격특성에 따라서 구분하기보다는 아동기적 발달경향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학령전에서는 성격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양육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발달기적인 특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형제수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인 특성에 영향을 주므로 형제가 많은 가정의 경우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표현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다섯째, 아동의 네 가지 성격특성과 역동성과의 관계는 학문성과 사회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문성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우월성에서, 사회성의 경우 인물상의 방향에서 어머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문성에서 긍정적인 아동이 부정적인 아동보다 아버지에 대한 우월성에서 높게 나타나 학문성이 긍정적인 아동이 아버지의 위치를 더욱 권위적이고 가정에서 우월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성에서는 보통인 아동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그림안에서 어머니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중요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사회성이 보통인 아동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어머니의 가정에서 표현적이고 애정적인 역할을 더욱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문적 활동에 긍정적이고 학습활동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는 아동의 경우 아버지에 대해 보다 우월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밖에 나가 활동적이지도 못하고 위축되어 있지도 않은 즉 대인관계에서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표현적이고 애정적인 역할을 더욱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어느정도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되고 허용될 때 아동의 학습활동에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적이고 규율과 통제가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아동이 밖에 나가 활동적이고 대인관계에서 활발하게 자신감을 갖는데 가정안에서 어머니의 애정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아동의 네 가지 성격특성과 양식과의 관계는 성격특성 중 학문성과 가족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문성이 부정적인 아동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가장자리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결과는 지적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당히 방어적인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한국미술치료학회, 1993) 학업과 관련되어 방어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족성에서 부정적인 아동이 긍정적인 아동보다 종이접기를 많이 사용하며, 가족관계에서 존재하는 불안이나 공포가 긍정적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문적 활동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은 학업에 관련되어 방어성을 보이고, 가족관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아동들이 가족관계에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언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살펴볼 때 이에 따른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본 연구는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 성격검사와 동작성 가족화 반응특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으로, 아동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간의 갈등이나 구조적 기능에 대한 정보가 표면적이었다. 아동의 성격과 가족간의 감정이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족 환경적 배경에 대한 정보와 부모의 참여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성격유형으로 표준화된 검사 도구와 동작성 가족화에 대한 반응을 점수화 시

킴으로 연구하였는데, 아동의 무의식적인 내면과 가족간의 역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적방법인 사례연구를 통해 풍부한 임상적 경험을 첨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각각의 성격특성과 동작성 가족화 반응특성만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네가지 성격특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동작성 가족화 반응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과 성격특성 및 동작성 가족화 반응특성을 살펴보기에는 남아와 여아의 사례수가 불일치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사례수간의 일치로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학습활동에서 긍정적인 아동이 아버지에게 대해 우월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모의 양육태도와 동작성 가족화의 반응특성을 후속연구에서 살펴보고, 발달적 경향에 초점을 맞추고, 출생순위에 따라 동작성 가족화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경우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6-7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성격특성에 따른 동작성가족화 반응특성을 연구하였으나 대상연령을 확대하여 발달단계에 따라 동작성 가족화에 대한 반응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성격특성(학문성, 사회성, 가족성, 정서성), 동작성 가족화

## 참 고 문 헌

- 강문희(1980).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 논문집, 9, 121-139.
- 강문희(1987). 유아생활지도. 서울: 교문사
- 강연옥 · 양익홍 · 김중술 · 홍강의(1985). 국민학교 아동의 운동성 가족화 검사반응, 서울의대 정신의학. 10(2), 158-172.
- 강영자 · 박성옥 · 양명숙(1997). 아동의 스트레스. 서울: 양서원.
- 권기덕 · 김동연 · 최외선(1993). 가족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특수교육.
- 김광일 · 원호택 · 김이영 · 김명정(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I), 정신건강연구, 1.
- 김동연(1991). 가족화를 통한 심리치료 소고, 발달장애연구. 5(1), 20-31.
- 김동연 · 최외선(1993). 성인미술치료. 대구: 동아문화사.
- 김명훈 · 정영운(1991). 심리학 개론. 서울: 박영사.
- 김재은(1968). 인물화에 의한 지능 측정.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2, 137-166.
- 김재은 · 여광웅(1973). 인물화에 의한 정신-신체 장애아의 정신 병리적 진단방법의 예비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1.
- 김재은(1983). 한국 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 김재은(1991).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다. 서울: 교육과학사.
- 김중술(1980). 아동과 Family Drawings. 정신의학보, 15, 20-23.
-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1995). 정상아동과 장애아동의 동작성 가족화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영남(1982).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 회지. 20(4), 205-223.
- 박랑규(1981). 인물화를 통한 정상아와 문제아군간의 신체상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1989). 심리검사의 이론과 활용. 서울: 하나의학사.
- 박혜련(1992). 행동장애 청소년의 운동성 가족화 검사 반응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 송인섭(1993). 유아성격검사. 서울: 학지사.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안승철 · 이영석 · 송근진(1996). 동작성 가족화에 묘사된 가족의 상호작용 및 역동성에 따른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차이, 미술치료연구, 3(1).
- 양익홍(1984). 정상아동과 정서장애아동의 운동성 가족화 반응의 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1997). 유아의 성격특성에 따른 인물화 표현.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정(1996).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그림(KSD)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석 · 최외선(1994). 중학생의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미술치료연구. 제 1집, 한국미술치료 학회. 1-30
- 이영석(1994). 동적 가족화에 의한 청소년의 가족 지각과 가족관계 및 의사소통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에경(1993). 정상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의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비교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향(1994). 동적 가족화(KFD)에 의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지각 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순영 · 김수정(1995). 인간의 사회적 · 성격적 발달. 서울: 학지사.
- 최외선 · 김갑숙 · 최선남(1994). 여고생의 동적 가족화에서 나타나는 그림의 양식과 가족강도와 관계, 미술치료연구, 1(1).
- 최외선(1995). 한국아동과 한국계 미국아동의 자아개념과 동적 가족화에 의한 가족역동성과의 비교연구, 미술치료연구, 1(1).
- 최외선 · 이영석 · 백양희(1996). 초 · 중 · 고생의 동적 가족화에 나타난 행위비교 연구, 미술치료연구, 3(1).
- 최외선 · 김갑숙(1996). 초등학교생의 동적 가족화에 나타난 인물상의 특성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3(2).
- 최외선(1996).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동적 가족화에 의한 가족지각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3(2)
- 최외선 · 전미향(1996). 미술기법을 이용한 집단상담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와 동적 가족화(KFD) 반응 특성. 미술치료연구, 3(2).
- Allport, G. W.(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 Barber, W.(1971). Locating children with emotional problem. In L. Fass(Ed). The emotionally disturbed child.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Ph, D. t al.(Eds.), Family Inventores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 Bell, G.D.(1948). Processes in the formation of adolescents' aspiration social forces, 42, 179-195
- Buck, J.N.(1948). The H-T-P technique: Aqualitive and quantitative scoring manua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 317-396.
- Burns, R.C. & Kaufman, S.H.(1970). Kinetic Family Drawing (K-F-D): An introduction to understanding children through Kinetic Drawings. New York: Brunner/Mazel.
- Cho, M.M.(1987). The validity of the Kinetic Family Drawing as a measure of self-concept and parent/children in Taiwa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Andrews University.
- Conant, M.S.(1988). Toward the validation of the Kinetic Family Drawing. Unpublished Ph. Dissertation Adelphi University.
- Cummings, J. A(1980). An evaluation of objective scoring system for kinetic family drawings(KF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University.

- Despert, J. L.(1940). A method for the study of personality reaction in preschool age children by means of their play. *Journal of Psychology*, 9, 17-29
- Die Leo, J. H.(1973). Children's Drawing as Diagnostic Aids. Brunner/Mazel, Inc., New York.
- Giglio, S.G.(1987).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separation-individuation in adolescence: Two comparative studies from development and family systems perspective.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Massachusetts University.
- Goodenough, F.L.(1926). Measurement of intelligence by drawing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Hulse, W.C.(1951). The emotionally disturbed child draws his family Quarterly. *Journal of Child Behavior*, 3, 152-174
- Layton, M.C.(1983). Specific features in the Kinetic Family Drawing of childre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 Levy, S.(1959). Personality projection in the human figure. Springfield: C.C. Thomas
- Machover, K.(1949). Personality projection in the human figure. Spring field: C. C. Thomas.
- Maddi, S.R.(1980). Personality theories: A comparative evaluation New York: Homewood, Dorsey.
- Mcphee, I.P. & Weger, K.W.(1976). Kinetic Family Drawing styles emotionally disturbed childhoo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0, 487-491.
- Mostkoff, D.L., & Lazarus, P.J.(1983). The Kinetic Family Drawing; The reliability of an objective scaring system. *Psychology in the Schools*, 20, 16-20.
- Murray, H. A.(1935).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Brien, R.O. & Patton, W.F.(1974). Development of an object scoring method for the Kinetic Family Drawing,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8, 156-164.
- Owen, D.R.(1972). "The 47, xxy male: A review", *Psychological Review*, 78, 203-33
- Reynolds, C.R(1978). A quick-scoring guide to the interpretation of children's Kinetic Family Drawing. *Psychology in the school*, 15, 489-492.
- Rosers(196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on.
- Roth, J.W. & Huber, B.L.(1979). Kinetic Family Drawing Familian Dynamic, Sonderdruck Stuttgart: Klett-Cotta.
- Ryhne, J.(1980). Gestalt psychology/gestalt therapy : forms / contents. In a Festschrift for Laura Perls. *Journal of the Gestalt*, 8(1), 77-88
- Shaw, J.G.(1989). A Developmental study on the Kinetic Family Drawing for a nonclinic, Black Child Population Unpublished ED, Dissertation. Andrews University.
- Sims, C.A.(1974). Kinetic Family Drawings and the family relation indica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 8788.
- Sobel, H. & Sobel, W.(1976). Discriminating adolescent male delinquents through the use of kintetic family drawings,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and Personality Assessment*, 40, 91-94.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 / Mazel.
- Tompson, L.V.(1975). Kinetic Family Drawing of adolescen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6, 3077B-3078B(University Microfilm No, 75-29.095).

- 
- Willerman, L.(1979). The psychology of individual differences, San Francisco: Freeman, W. H.
- Zuckerman, M.(1979). Sensation seeking: Beyond the optimal level of arousal, Hillsale, N.J.: Erlbaum.